

2015년 5월 12일 화요일

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. 집과 학교. 문득 재작년 5월에 본 '푸르른날에'라는 연극이 떠올랐다. 마지막 장면이 끝나면서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그 가사가 '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'다. 가사처럼 푸르른 5월이었지만 날씨는 푸르르지 않았다. 바람이 많이 불고 춥고 비도 와서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다. 그리움.. 가족들은 다 외출했고 혼자 있기는 싫고, 그래서 친구 민승이와 학교 가기 전 일찍 만나 오랜만에 서브웨이 샌드위치도 먹고 과제는 잠시 잊고 수다를 떨었다. 요즘같이 혼자 있기 힘들 때, 우울할 때 친구라는건 너무 고맙고 힘이 되는 존재인 것 같다.

인간. 과거. 기억. 아카이브

Human & Memory Archives